

종합

“새천년대교 3만t급 통항 가능해야”

신안군 압해도와 압태도를 연결하게 될 ‘새천년대교’ 건설이 대형 선박의 통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목포해양대 교수들 정부에 ‘재설계’ 건의

“현 설계론 3천t급만 통과, 해상 장애물 우려”

목포해양대 교수와 직원 등 207명은 8일 신안군 압해~압태를 연결하게 될 새천년대교 건설의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해상교량은 건설되면 반영구적인 사회간접자본인데 먼 장래를 내다보고 건설해야 한다”면서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인 새천년대교를 3만t급 선박도 통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천년대교가 건설될 ‘면도수’로는 서해안과 중국~목포항을 단

거리로 연결하는 곳으로, 발주처인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현재의 해상교통 상황만을 고려해 3천t급 통항 수준으로 건설하고 있다”면서 “이 계획대로 건설되면 3천t급 이상은 단거리 항로 대신 외해(外海)로 빙 돌아서 통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해로 돌 경우 3~5시간이 더 걸려 1척당 1천만 원의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 교량으로 면도 수로가 막히면 서남해안 발전에도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천년대교 건설이 현재 계획대로 설계돼 추진될 경우 목포에서 중국을 운항하는 대형 선박의 우회로 인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서해안 시대에 따라 중국과의 선박을 이용한 무역량 증가와 다도해 관광선박 등이 점점 대량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 선박의 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현재 설치돼 있는

송전선이 철거되고 수심이 확보되면 3만t급 이상의 선박들도 통항할 수 있는 수로”라면서 “전통기관과 협의나 면밀하고 정확한 해상교통 분석 평가도 없이 새천년대교 건설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새천년대교는 공사비 5천500억원이 투입되며 총연장 10.8km에 교량 구간은 7.2km로, 신안군 자은면 등 9개 면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교량이다.

지난해 9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끝났으며 내년 6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파출소 부활한다”

강화라 경찰청장 밝혀

현행 지역사회 치안의 최일선을 맡는 지구대가 장기적으로 파출소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대는 지난 2003년 경찰의 치안 역량을 높이고자 3~5개의 파출소 인력과 장비를 통합한 형태로 운영됐지만, 관할 지역이 넓어 그동안 서민 친화형 치안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화라 경찰청장은 8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인 ‘풀뿌리 치안’을 확립하려면 현행 지구대 체제로는 미흡하다”며 “장기적으로 파출소를 많이 부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경찰관이 지역사회에 책임감을 갖고 치안활동을 하려면 지구대보다 세분화된 파출소 형태가 훨씬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구부림 강화 광섬유’ 개발

광주과기원 한원택 교수팀 ‘레이저 포커스 월드’ 제재



광주과학기술원 한원택 교수 연구팀이 초고속 광통신 망 FT-TH 구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던 광섬유 휘어짐 손실을 최소화한 구부림 강화 광섬유(BIF) 개발에 성공해 세계적 저명 과학 전문 잡지인 ‘레이저 포커스 월드’의 세계뉴스(World News)로 기사화되는 등 국제 과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정보통신공학과 한원택 교수팀이 광섬유의 휘어짐 손실을 최소화한 세계 최고 효율의 ‘구부림 강화 광섬유(BIF)’ 개발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구부림 강화 광섬유(Bend-Insensitive Optical Fiber)’는 일반 광섬유와는 달리 광섬유 외피 영역 내에 일반 굴절률보다 낮은 굴절률 구조를 형성시켜 광섬유가 휘어지면서 생기는 정보손실을 보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빛의 만평

- 김중두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



‘국제우호항만’ 목포 총회

Network of Affiliated Port-우호항만) 목포총회에서 이상현 전남도 정부부지사, 오자키 마사노오 고치현지사, 정중득 목포시장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8일 오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일본 고치항 등 6개국 7개항 대표 및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1회 INAP(International Network of Affiliated Port-우호항만) 목포총회’에서 이상현 전남도 정부부지사, 오자키 마사노오 고치현지사, 정중득 목포시장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취업난? 광주시 문화인력 공채 미달

광주시가 지난달 교향악단, 합창단 등 시립예술단의 공연기획·홍보보안원 채용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어 지난 7일 재공고했다.

이 는 지역 취업난을 감안할 때 이 상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 문화전문인력 부족과 양성 시스템 미흡, 공연기획사의 열악한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교향악단·합창단·국극단·무용단 등 각 단체의 기획·홍보보안원 1명씩 모두 4명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조건

은 2년 계약직(기간만료 시 재계약 가능)에, 연봉 3천500만원 또는 삼인 단원 보수 수준 등을 내걸었다. 광주시 문화예술회관 측은 당초 실기시험에 응시한 30대1의 경쟁률 을 보이는 등 경쟁이 치열해 응시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극단 과 무용단에 각각 5명과 1명이 응시 했을 뿐,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아예 원서 제출자가 없었다.

특히 국극단과 무용단 응시자도 상당수 수도권 거주자였으며, 경력도 다 미흡해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 도 높은 실정이다. 시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예술

대나 문화전문대학원까지 있는 광주 에서 공연기획·홍보 인력을 뽑는 데 응시자가 없다는 것이 솔직히 이해 가 안 간다”며 “수도권에서 볼 때는 조건이 미흡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지역에서 이 같은 인력이 양성 되고 기관이나 단체에 공급돼야 하 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 했다.

공연기획이나 홍보를 전문적으로 맡을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 관련 규 칩까지 개정된 시 문화예술회관은 재 공고에도 응시자가 없을 경우 특별채 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부, 北에 ‘임진강 참사’ 사과 요구

정부는 8일 북측의 사전 통보없는 임진강 댐 방류로 인해 경기도 연천 군에서 우리 측 민간인 6명이 실종 또 는 사망한 사태와 관련, 북측에 중보 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의 무단방류로 인해 국민 인 명피해가 발생하는데 대해 북한 책임은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 구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유사한 사 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 공유하천 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와

를 위한 남북간 협의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논평은 전날 북측의 해명에 대해 “정부는 북측의 이런 통지는 우리 측 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우 리 측 심각한 인명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 다”고 밝혔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단 방류’란 표현을 쓴 데 언급, “북 측이 어제 관계기관 명의로 스스로 밝 혀온 바에 따르면 자기들이 무단방

류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설 명했다.

앞서 북측은 7일 보내온 대남 통지 문에서 “임진강 상류 북측 언저(댐) 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 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 북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 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廣告接수안내

☎(062) 227-9600
☎(062) 227-9500

분류광고(1차)

광주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공표 시범규칙 제 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중과 같이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광고주 및 광고주에 관한 신고사항이 아니라, 광고 게재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유선전화로 관하여 연락 받음에 의거 광고인이 임의 개정사항을 규정한다.

1. 분류의 소제 및 기수
2. 분포소지: 전남 구내로 판매인 연월의 357-3번지
3. 계약기간: 계약기간: 계약기간: 계약기간
4. 계약방법: 계약기간: 계약기간: 계약기간
5.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기간: 계약기간
6.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기간: 계약기간
7. 신고일: 계약기간: 계약기간: 계약기간
8. 계약사항: 계약기간: 계약기간: 계약기간

2009년 9월 9일
광고인: 양희환

금산공인중개사
T.681-5688 H.011-601-5354
(금호동 서평역 건너, 2순환도로변)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용지 (C1지역)매매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 4면 광로변

대지
약 2850㎡, 가격 협의결정

근린시설, APT신축, 병원, 일반상가, 기타 중심상업시설 가능

최고의 교통접근(광주시 청 접근성 5.18 광로변)

광주최고의 상권 최고의 입지 상업지역

현재 10층 신축건물 앞

2008.11월부터 2,000㎡(605평) 이상 건축시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채용하여야 건축허가 가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의거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꼭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또한, 제5조에 의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교육일정 2009. 9. 7.부터(월·수·금) 총60시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국토해양부 지정(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문의/전화 www.gred.kr

- 원 장 이명규 교 수 062-670-2421
-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부동산투자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토지

- ▶ 담양 청평 댐신부지(계획관리지역) 3,342㎡ 매 4억6천
- ▶ 남평읍(중흥소파구) 16,810㎡ 매 4억5천
- ▶ 북구 용봉동 대지 914㎡ 매 8억5천
- ▶ 광산구 요기동 담 3,000㎡ 매 1억3천
- ▶ 화순읍 계소리(자연녹지) 1,362㎡
- ▶ 무안군 일로읍(계획관리지역) 담 2,437㎡
- ▶ 무안군 문남면 관리지역(해변가) 전 23,600㎡ 계획관리지역 전 5,140㎡
- ▶ 화정동 터미널 인근 대지 1,016㎡

상가건물

- ▶ 용봉동(2층) 매 1억8천(보 5천/월 80)
- ▶ 오치동(8층) 매 1억7천(보 2억/월 1천2백)
- ▶ 고시동(5층) 매 8억5천(월 1천2백)
- ▶ 용봉동(3층) 매 4억(보 7천/월 2백)

식당

- ▶ 월출산 입구 가든식당 7,665㎡ 매 7억5천 - 댐신 부지최적
- ▶ (담양,장성 성업중인) 대 690㎡ (매 1억5천) 대 2,700㎡ (매 3억5천)

광주시내권 원룸부지, 담양근로자주택부지 급구함
경매부동산상당, 대출상당, 각종부동산투자상당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

HOME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TEL:062-233-2222 H·P:011-616-8698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 지역 : 전.남북. 기타지역
- 용량 : 100KW이상~ 무제한
- 조건 : 민원해결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완료된 곳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0-7 유지빌딩 501
(상무지구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 옆)

당뇨속보

혈당조절이 안되십니까? 당뇨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인크리신”가 도와드립니다.

특수의료용도용 식품개발 (원자생식물)

생물공학자가 자신있게 만든 제품!!

- ▶ 당뇨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
- ▶ 인슐린 의존성 당뇨 환자의 인슐린 사용량을 줄여줍니다
- ▶ 당뇨병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
- ▶ 당뇨병 진단을 위한 혈당 검사를 줄여줍니다
- ▶ 당뇨 진단을 위한 혈당 검사를 줄여줍니다

당뇨속보 010-3598-7080, 1566-3957